

2 종합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인포21 보안은?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지난달 28일, 전북대 통합정보시스템이 해킹돼 32만 명의 이름, 주민번호, 학번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시간대별로 총 3차례에 걸쳐 해킹이 이뤄졌지만, 마지막 해킹이 끝난 13시간 후에야 이를 인지해 피해가 컸다.

사고가 발생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12일엔 아산의 모 대학에서 학생 약 1만 명의 전화번호가 유출됐다.

잇따른 대학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유출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지

금, 우리학교 통합정보시스템 인포21의 정보보호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인포21은 평일에는 담당자들이, 휴일과 주말에는 관제 서비스로 해킹 접근을 감시한다. 모니터링은 통합관제(EMS), 디도스 대응 등으로 이뤄진다.

통합관제로 모든 형태의 네트워크 솔루션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디도스 대응은 과한 트래픽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실시간으로 담당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는 시스템이다.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사고 상황 파악 ▲상위 보고 ▲사이버수사

대,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 신고 ▲사후 처리 전담 순으로 대응한다. TF팀이 꾸러지기도 하는데, 개인정보책임자 주관으로 유출 대응팀, 민원대응팀, 정보처 입력으로 구성된다.

인포21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기 때문이다. ISMS는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다. 이는 정보보호 위협관리와 침해사고 예방을 할 수 있으며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갖는다.

해당 검사는 심사 기관의 현장심사 방법으로 실행한다. 심사위원이 교내를 직접 점검하고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인터뷰한다. 심사 항목



인포21 로그인 화면

은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주요 정보통신설비 목록과 시스템 구성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절차 등이다.

우리학교는 매년 해당 검사를 통과하고 있다. 정보처 정보기획팀 최효승 주임은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계속 판단하며 인터뷰하기 전 기준으로 충족하는지 확인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보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주최로 매월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수행한다.

최 주임은 "보완해야 하는 사항을 찾아내고 조치해 매년 개선하고 있다"며 "매년 시스템, 웹, 소스코드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으며 전북대 해킹 사고에서 이용된 파라미터 변조뿐만 아니라 버퍼오버플로우, 포맷스트링, SQL 인젝션 등 28개 항목에 대해서도 매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대희(컴퓨터공학) 교수는 "가장 좋은 해킹 예방법 중 하나는 모의 해킹을 통해 조기에 취약점을 발굴해 차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시스템을 모의 침투용으로 똑같이 구축하고 화이트 해커들에게 의뢰해 모의 공격을 수행시키면 심각한 취약점이 있는 상황인지 안전한 상황인지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수는 "해킹당한 경우를 대비해 데이터 암호화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패스워드는 반드시 적절하게 해싱해서 관리하고 민감한 정보는 평문으로 DB에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해 저장한다면 DB가 노출됐을 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사색의 광장에 배달 픽업존 운영 '바닥 파손 방지책'

최고훈 기자 cgh99915@khu.ac.kr

【국제】사색의 광장에서 배달 픽업존이 시범 운영된다. 배달 오토바이의 잦은 통행으로 생기는 바닥 타일 훼손 방지 대책이다.

사색의 광장에서는 학생들이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장 내부는 도보 통행만 가능해 오토바이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러나 광장 벤치나 도서관 계단 앞으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가 자주 출입한다. 잦은 오토바이 출입으로 광장 내 깨지거나 갈라진 타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 유격이 발생한 타일도 있다.

사색의 광장 미화 관계자는 "배달 오토바이와 축제 무대 설치업자의 트럭이 오고 가며 타일 훼손이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제캠 총무팀은 총학생회와 협업해 내년 초부터 사색의 광장 배달 픽업존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위치는 사색의 광장 등나무 벤

치 좌·우측, 중앙도서관 좌·우측 출입문이다.

국제캠 총무팀 관계자는 "바닥 타일 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픽업존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봄, 벚꽃 축제에서 배달 픽업존을 운영한 결과 학생 안전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픽업존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배달 라이더와 학생들이 픽업존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라이더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픽업존 위치를 홍보하고 학생들에게는 각 단과대 학생회를 통해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정민경(시각디자인 2023)씨는 "픽업존이 도입되면 타일 훼손 문제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승민(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20)씨는 "배달 기사와 학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픽업존의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사전 공지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잦은 오토바이 출입으로 깨진 사색의 광장 타일

(사진=최고훈 기자)

우정원운영위 총학에서 학생 대표 참여

정재환 기자 jacekh@khu.ac.kr

【국제】오는 2학기부터 우정원 생활관 운영위원회(생운위)에 총학 생회측이 학생 대표로 참여한다.

우정원 생운위와 제2기숙사 생운위는 각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 안전을 관리한다. 우정원 생운위에는 생활관 관장, 총무관리처장, 미래혁신단장 등이 참석하는데, 이번 2학기부터 총학생회 측 학생 대표가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한영신 생활관장은 "기존에는 기숙사 멘토 학생 중 멘토장이 참석했다"며 "학생을 대표하고 있는 총학 생회 측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한 관장은 "평소 기숙사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학생이 많다"며 "기숙사 운영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처 알 수 없는 학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운영 주체가 다른 이유로 제2기숙사 생운위에는 총학생회 측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않는다. 한 관장은 "우정원은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제2기숙사는 직영이 아닌 사학진흥재단과 같이 운영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